조계종 임시종회, 성원 미달 '무산'…7월 재추진

재적의원 81명 중 24명만 출석
1시간 대기 후 11시 산회 선포
대진 스님 "종단 위상 하락" 우려
법원 스님 "삼보정재 해명 필요"
도성 스님, 호소문서 참여 촉구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중앙종회 제238회 임시회가 성원 미달로 결국 개원하지 못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대표 발의자 보인 스님 등 종회의원 27명의 요구로 6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38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재적의원 81명 가운데 24명만 출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회의를 개원하지 못했다.

관례에 따라 약 1시간 동안 성원을 기다렸지만 끝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주경 스님은 오전 11시 산회를 선포했다. 주경 스님은 중앙종회법 제43조 '의장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또는 회의를 끝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7월 중 임시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주경 스님은 "중앙종회에는 선우회, 정법회, 비구니회, 화엄회, 무량회 등 여러 종책모임이 있다. 통상 종회에 앞서 회장단과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등이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이번에는 종책모임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반대 의견도 있어 임시회가 성립되지 못했다"며 "7월 중 연석회의를 열어 이른 시일 내 임시회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7월 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장단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각 종책모임에서도 참석하지 않은 종회의원들을 설득해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회의가 무산되자 일부 종회의원들은 종책질의 자료 배포와 부의장 불참 등을 언급하며 종회의원의 책무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종회 사무처가 "회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크 사용을 제한하자 일부 의원들이 "중앙종회의원의 의견 표현까지 제지하느냐"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중앙종회가 6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38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재적의원 81명 가운데 24명만 출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회의를 개원하지 못했다.

이후 발언에 나선 대진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은 1만2000여 명의 종도의 뜻을 받들어 종단의 입법기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종도들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진 스님은 조계종의 위상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스님은 "조계종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장자종단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권에서도 여러 종단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며 "개별 사찰 운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종회의원과 종단 구성원 모두가 성찰하고, 조계종의 위상 회복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단 발전을 위해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책임을 통감하며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우회 종책위원장 법원 스님도 이번 임시회 소집 취지에 대해 "은해사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열암곡 마애부처님 사업 기금 운용 등 종도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종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를 추진했다"며 "종회의원에게는 종도들의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는데 회의조차 열리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법원 스님은 특히 "삼보정재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이 이뤄져야 하며,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선거가 과열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장 도성 스님도 종단 미래를 위한 종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종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도성 스님은 "디지털 문명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대에 종단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할 교육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총무원장 선거를 3개월 앞둔 만큼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 정비와 최근 불거진 종단 의전 실패, 종무행정 혼선 등도 입법부인 중앙종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도성 스님은 "이토록 시급한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종도를 대변할 중앙종회는 지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며 "종단의 미래를 논하는 공적인 자리에 왜 참석하지 않는 것이며, 대화와 토론의 자리에 왜 나오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반대와 비판도 가능하지만 중앙종회의원이라면 회의장에 나와 종도들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그것이 종도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본질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 잇단 예방서 '선명상 대중화' 당부

국민 마음건강 진흥 강조해
서울시에 '정책협의체' 제안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예방한 정치계 인사들에게 불교문화유산 보존과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방을 받고 "서울이 세계적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의 성과 위에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를 제대로 살피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국가유산 가운데 불교문화유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하고, 지방 불교문화유산까지 포함하면 70%를 상회한다"며 "유형 문화유산에는 역사와 국민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만큼 잘 보존·관리해 후손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서울시와 불교계가 문화유산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23일 예방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에 대해서도 "종교를 떠나 국민 개개인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직접 체험해 보고 좋으면 스스로 채택해 활용하면 되는 것"이라며 "서울시 문화·종교 관련 정책 창구가 보다 원활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6월 2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예방에서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불교의 정신이 뿌리 깊게 깃들어 있고, 문화유산에는 고귀한 선조들의 정신들이 새겨져 있다"며 "이런 정신들이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유산 관리·보존에 있어 금액적 지원을 비롯해 지금보다 더욱 실질적인 방안으로 세심하게 실행하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6월 23일 이뤄진 김부겸 전 총리의 예방에서는 향후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환담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에 대한 소회를 전하며 "시민들이 보여준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게 정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우 스님은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경험을 계기로 더욱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같은 날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자와의 환담에서 진우 스님은 '충(忠)·효(孝)·예(禮)' 가치가 담긴 도정 운영 방향과 마음건강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진우 스님은 감정 절제를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스님은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을 떨쳐낼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충·효·예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충·효·예 교육과 선명상을 조화롭게 접목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6월 22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도 진우 스님은 "종교적인 면을 떠나, 국민 모두가 '마음건강'을 관리하는 역량을 키워 나간다면 국민 통합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며 "어릴 때부터 받는 마음건강 교육이 세상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데도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 임은호 · 박지운 · 이현희 기자

한일 불교계 "신·행으로 세계평화 구현"

제43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6월 17~20일, 일본 교토 연력사
공동선언문 채택 · 평화기원법회



한일 불교계가 신(信)과 행(行)을 바탕으로, 서로를 법우로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죠 스님)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천태종 총본산 히에이산 연력사(延曆寺)에서 제43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일 불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양국 불교계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17일 일본 사찰 탐방과 18일 학술강연회에 이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명안 스님(여래종 총무원장)과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사토 류이치 스님이 대표로 발표했다. 한일 불자들은 "자신의 과제를 자각하며 신과 행을 갈고 닦아 도반들과 깊은 교류를 나눈다", "한국과 일본의 불교도들은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서로를 법우로서 존중해 향상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하며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19일에는 일본 천태종 종무총장 호소노 슌카이 스님의 집전으로 세계평화기원법회가 봉행됐다.

진우 스님은 "세계 평화는 개개인의 내면적 평화와 수행이 뒷받침될 때 실현된다. 개개인의 마음이 선명상을 통해 평안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